

# 회 의 록

위 원 회	지하융복합개발 기술위원회	위원장	한 신 인	
회 의 안 건	지하융복합개발 위원회 2016년 2차 전체위원회 회의			
회 의 장 소	학회 대회의실	일 시	2016. 4. 29(금) 18:30~	
회의참석자 명 단	성 명	소속/직위	성 명	소속/직위
	고태영	과장/SK건설	안재선	탐장/서울디자인재단
	윤대영	본부장/서울디자인재단	이미애	소장/아이라이트
	이강주	교수/창원대	서미란	대표이사/메카디자인
	송재명	선임/서울디자인재단	한신인	상무/서영엔지니어링
	황제돈	대표이사/에스코		

회 의  
내 용  
(1/2)

**■ 2016년 2차 전체 위원회 회의**

□ 위원회 모임 안건

- 서울시 (구)국세청 별관 지하공간 개발 프로젝트 공모전 당선작, “서울 연대기” 발표 세미나
- 발표자: 조경찬 소장,  
          <미국, Terminal 7 Architects >



<서울 연대기 당선작 조감도>



<지하융복합개발기술위 모임-1>



<지하융복합개발기술위 모임-2>

◎ 회의내용 요약

○서울시는 1937년 당시 체신부 산하 국세청 남대문 별관자리 지상 6층, 지하1층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옛 국세청 별관 지상·지하를 역사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공간 설계 공모에서 미국의 '터미널 7 건축사사무소'의 '서울 연대기'를 선정하였음.

회의안건	지하융복합개발 기술위원회 2016년 2차 전체위원회 회의		
회의장소	학회 대회의실	일시	2016. 4. 29(금) 18:30~
회의내용 (2/2)	<p>○현재 대상부지는 세종로 개발 등에 의하여 기존 건물을 해체하여 현재 대지 형태로 비어있음. 지상부 플랫폼을 소광장으로 계획하여 기존의 지상부는 없애고 단층으로 돼 있는 지하는 약 10m 깊이의 3층으로 지하공간 시설물과 함께 나눠진 가변적인 전시 공간으로 에트리움을 설치하도록 하였음. 시설물 크기는 가로 45m, 세로 27m이고 지상으로부터 용이한 접근과 지하 2층 위치에서 덕수궁 지하 보도가 연결되도록 계획하였음.</p> <p>○공모전에서 심사위원들은 '서울 연대기'가 △서울의 중심 역사 공간 △시민들을 위한 공공공간 △미래의 창의공간 등으로서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장 완성도 있게 제시했다고 평가하였고, 특히 주변의 역사적·자연적 지형을 건축과 조경으로 잘 담아내었다고 평가하였음.</p> <p>○당선된 '서울 연대기' 외에도 운생동 건축사사무소의 '역사문화연결체'(2등), 디자인그룹오즈 건축사사무소의 '서울의 거실'(3등) 등이 당선되었고, 가작으로 10개 작품을 선정하였음.</p> <p>○현재 기본설계가 완료된 상태이고 내년 상반기 공사에 들어가 2017년 완공할 예정이므로 오는 6월경에 바로 착공과 함께 Fast track 형태로 설계시공이 동시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.</p> <p>○시에서는 옛 국세청 건물 주변이 서울의 근·현대 문화를 보여주는 곳이므로 세종대로의 역사적 가치를 살리면서 시민들이 역사문화를 경험하고 다양한 체험과 참여를 할 수 있는 시민 공간으로 조성하려는 계획을 세웠음.</p> <p>○땅에서 들어 올려진 플랫폼은 지하 공간의 지붕 역할이면서 동시에 세종대로 변의 근경과 소공로를 따라 열린 원경을 바라보는 조망점을 제공하고, 지하 전시공간은 시민청과 연계돼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를 담을 것으로 예상됨.</p> <p>○서울은 지형적으로 주변에 산이 둘러 싸여 있고 도심 건축물이 존재하여 다양한 높리와 변화되는 스카이라인이 존재하므로 본 대상지의 주변의 단절되어 있던 요소를 서로 이어주는 컨셉을 두었음.</p> <p>○시에서는 운영주체가 서울역사 박물관이고, 본 대상지에 서울 도시모델을 전시할 수 있도록 하고 도서관 등 시민의 문화공간, 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하였음. 다만 지상 지하차도가 신설됨으로 인하여 대상 지하공간 시설의 시민활용성이 작아질 우려가 있음. &lt;이상&gt;</p>		